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 최종 확정

내년 1월 실무 추진단 구성...2026년까지 400억 투입키로 광양읍·금호동·도이동 주거·교통·항만 등 수소 생태계 박차

광양시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광양시는 지난 26일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국토부 사업설명회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남도와 여수광양항만공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기업체와 함께 분야별 수소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국토부에 제출했다.

시는 수경·보완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고,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수소도시란 도시 내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등의 수소 생태계가 구축돼 주거와 교통 분야 등에서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시민 모두가 제각각의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말한다.

시는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지난해 10월 광양 시민의 날을 맞아 '2050 수소경제 비전 선포식'을 통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시민 앞에 선언했다.

올해 4월엔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12월엔 광양시 수소산업 유치·육성에 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시민과 기업체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광양시에서 2023년부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나선다. 우선, 주거 분야에서 광양읍에 들어서는 청년 행복주택과 성황동 다목적 스포츠센터(수영장)에 수소연료전지 설비를 구축

해 전기와 온수를 생산 공급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출퇴근 버스, 청소차 등을 연차적으로 수소차로 전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수소 인프라 구축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수소충전소와 연료전지 발전소 및 광양항에 공급하기 위해 19km 배관을 매설할 계획이며, 수소도시 조성사업 내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 운영센터, 시민에게 수소에너지를 체험하고 안전성에 대해 홍보할 홍보센터를 구축한다.

지역 특화사업으로는 항만 내 야드 트랙터와 항만 내 감시 기능을 하게 될 드론을 수소연료전지로 전환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광양읍, 금호동, 도이동 일원을 중심으로 2023~2026년(4년간)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400억원(국비 200억, 도비·시비 200억)이다.

광양시는 내년 1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실무 추진단 구성, 마스터플랜(MP) 수립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 여양고 경사났네

서울대·의대·치의예 등 전국 주요대 대거 합격 진학캠프·수준별 수업 등 특화 프로그램 성과

여수 여양고등학교가 서울대 등 주요 대학 합격자를 대거 배출하면서 지역 대표 명문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수교육지원청과 여양고 등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신입생 수시모집에서 서울대 2명을 비롯한 의대 2명, 치의예과 1명, 약학과 3명 등 자연계열 최상위권 합격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여기에 성균관대 1명, 한양대 2명, 이화여대 1명, 건국대 1명, 동국대 1명 등 다수의 수도권 주요 대학 합격자도 나왔다.

특히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교대 입시는 경인교대 2명, 광주교대 11명, 공주교대 1명, 전주교대 1명, 대구교대 1명, 정주교대 1명, 진주교대 3명 등 수십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명실상부한 지역 명문고로 자리매김 했다.

이 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양고만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주효했

기 때문이다.

전교생 370명의 작은 농어촌 학교인 여양고는 지난 10년 동안 협력동아리와 인문학 강좌, 수시대비 진학캠프, 커리어 플러스,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자기 주도 학습캠프, 진로탄탄 진로학습, 맞춤식 수준별 수업과 심화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왔다. 이차림 여양고 교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일궈낸 성과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외면 받던 농촌학교에서 지역 우수 학생들이 몰려드는 명문고로 도약하고 있다.

김현명 여양고등학교 교장은 "올해 서울대 정시에서 서류평가가 처음 도입돼 정성평가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차별화 된 수준 높은 개인별 학생부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더욱 소중한 성과를 일궈 낸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 '탄력'

사업비 300억원 중 국비 150억원 확보 '역대 최고' 노관규 시장·여야 국회의원 등 현안 해결 노력 성과

순천시가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300억원 가운데 꼭 필요한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순천시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순천시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비 150억원을 비롯해 3개 사업에 247억원의 국비를 증액·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은 애초 중앙부처 사업건의 때는 미반영 됐으나 노관규 순천시장의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국고 확보 활동을 펼친 성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소병철 국회의원과 윤영덕, 주

철현 등 호남권 국회의원의 지원이 힘을 보탤다. 또 그동안 호남권을 받 받고 도와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의 역할이 컸다고 순천시는 설명했다.

콘텐츠 산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지방에서는 순천이 최초로 애니메이션 메인 프로덕션 분야 글로벌 제작 기지를 조성한다.

이에 따라 순천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인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창의력 집약산업이자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애니메이션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 외에도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조례처리부구 하수관로 정비 69억원(국비41억원), 황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93억(원국비 56억) 등 국고사업으로 총 4519억원(국도비 3812억원), 공모사업으로 1996억원(국도비 1280억원) 확보하는 등 총 65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한편 2022년 특별교부세도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전방위적으로 막바지까지 노력해 승수를 급경사 정비사업 등 2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소병철, 서동용 두 지역구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별 배려 덕분이다. 지역의 현안 해결과 재난 안전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만 습지 전경.

순천만국가정원·습지 '웰니스 관광지' 재지정

2년간 홍보마케팅 지원...2023정원박람회 홍보 기틀 마련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4회 연속 선정됐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2017년부터 4회 연속 선정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로 입지를 굳혔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웰니스 관광지 연계추진 관광코스와 팸투어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자연·숲 치유 분야의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 됐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은 지난 22일

'2022 한국관광의 날'로 선정되어 웰니스 관광지의 모태가 됐다.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된 관광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한국관광공사와 전라남도의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순천시는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웰니스 힐링 프로그램과 팸투어 등을 운영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첫 삽'

식품품 제조업 20개소·전기전자 부품 제조업 5개소 분양 추진

곡성군 운곡특화농공단지가 본격 조성에 들어갔다.

곡성군은 지난 27일 오후 곡성군 오산면 운곡리 현장에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철 곡성군수, 윤영규 곡성군의회 의장, 진호진 전라남도의회 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운곡특화농공단지는 2013년 9월 특화농공단지 예정지를 확정하고 2016년 7월 지정 고시했다. 이후 사업 추진방식을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2020년 10월 개발계획 변경 고시했다.

운곡특화농공단지는 총사업비 264억 원을 투입

해 25필지의 산업용지와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전체 개발 면적 18만 2590㎡의 규모로 2025년 준공 예정이다.

곡성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품과 전기전자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분양을 추진한다.

또 유망기업을 유치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운곡특화농공단지에 전국의 우수한 기업체가 많이 입주하여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 또한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농업경영인·청년 후계농 모집

보성군, 내년 1월 27일까지

보성군이 내년 1월 27일까지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1973년 1월~2005년 12월 출생자)으로 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거나 경력 10년 이하인 농업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3년 1월~2005년 12월 출생자) 중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청년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 후계농은 선발 규모를 2배 확대했으며 영농 정착지원금도 기존 월 80만~100만 원에서 월 90만~11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착 지원금은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년간 지급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산단 세탁소 명칭 공모

시, 내년 1월 2일까지

여수시 '여수시 산단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명칭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내년 1월 2일까지 진행되며 지역 최초로 현재 건립 중인 '여수시 산단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특색을 표현하고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선정, 홍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당 1개 명칭만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공모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ikarosjun@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 산단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여수시 삼동지구 여수혁신지원센터 옆 부지(주소동 1038-1)에 1층 330㎡ 규모로 들어서며, 현재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에서는 2023년 2월 준공을 마치고 3월부터는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숯갈비 이웃돕기 성금 구례군은 지난 26일 광양숯갈비(대표 이혜숙)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대표는 "23년 동안 구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군 제공>



곡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장관상 수상

여가부 청소년푸른성장대상

곡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서울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여가가족부 주최 '제18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건)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학습, 상담, 특성화 프로그램, 건강검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9년에는 청소년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청소년성장플랫폼인 다얼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쉽게 알려주고 실무자들과 열정적인 청소년들의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9시부터 24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가가족부와 곡성군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